

‘기존’에 대항하는 주체성,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20120 이진영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기존의 사고 체계를 뒤집는 혁명적인 학설을 마주했을 때 이를 거부감 없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학설이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에서 신빙성 있는 정설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일 때 반항은 더욱 거세진다. 이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발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윈주의로부터 뺄어나간, 즉 ‘종’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이루어져온 모든 사고와 실험을 부정하고 이기적 주체를 ‘유전자’로 상정한 그의 행보는 혁명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생물학의 발전 흐름 안에서 생각의 “기본 단위”를 바꾸고자한 발칙한 전환은 결코 ‘이기적 유전자’가 처음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생명과학의 시작 또한 이와 같은 독자적인 변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기적 유전자’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추가적 연구들 중 하나는 최근 또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주체적 변화 그 자체이자 변화 촉매체로서의 책 ‘이기적 유전자’를 탐구함과 동시에 생물학의 진화 흐름 속에서 이기적 유전자설을 등장하게 한,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설에 의해 등장한 혁신적이고 주체적인 변화들을 살피고 이들의 공통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이기적 유전자설이 등장하기 한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19세기 중반 인간은 뉴턴 역학에 따라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를 이해했고 이어 양자 역학의 발전으로 미시 세계까지 탐구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러나 아직 생물은 물리학이나 화학의 차원에서 연구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과학자들은 생명, 유기체, 감각 등의 개념을 표현할 언어의 필요성을 느꼈고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독자적인 학문의 단위를 구축하고자했다. 기존의 역학들로 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과학 사조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은 생물학, 생명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생물에 대한 철학적, 심리적 접근까지 연구 범주를 확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경향성에 기초한 논의 중 하나로 책 ‘이기적 유전자’가 발표되었다. 이기적 유전자설은 집단, 혹은 개체의 차원에서 논해져왔던 생물학을 유전자의 차원으로 변화시켰다. 유전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주체였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유전자라는 자기 복제자의 보존을 위해 진화해온 ‘생존 기계’로 비추어진다.¹⁾ 이 관점은 집단이나 개체의 관점에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자연선택, 개체 간의 의사소통, 가족계

1) 이기적 유전자. p.68

획, 생식 등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그 자체로도 혁명적이었던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현재 인터넷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기반이 된 것은 ‘밈(meme)’이라는 개념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와 상응하는 또 다른 자기 복제자로서 밈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문화를 진화론적으로 바라보는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후속 연구 중 하나인 수전 블랙모어의 책 ‘밈’은 현대 사회에서 밈학이 자아와 주체성 측면에 있어 인식의 혁명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현재 넷문화로 진출한 밈은 그의 말처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핵심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체계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문화의 복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아가 반영된 변형이 무한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념에서 발전한 새로운 자기복제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물리학과 화학이 기반이었던 기존의 생물 연구에서 생물을 기준으로 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한 생물학, 종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진화론으로부터 유전자를 기준으로 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낸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독자적 학문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을 뒤흔드는 독자적 문화체제로 발전한 밈. 생각의 기본 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 변화들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주체적인 사고와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정한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생물학의 한 흐름 안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해온 이 사례들은 기존의 이론 체계 내에서 안주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에 혁명이라 불린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²⁾ 생물학이라는 내부적 체계 하에서 인간은 유전자라는 자기 복제자에 대항하는 주체적 문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일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말을 생물학의 발전이라는 전체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고찰해보면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한 추가적 논의가 가능해진다. 바로 인간은 끝없는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유전자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성취에도 반항적으로 도전하여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는 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힘, 우리가 지닌 주체성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2) 이기적 유전자, p.335